

의안검토보고서

1. 청원인 :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640-7번지 유성근 외 2,447인
2. 소개의원 : 오영세, 김남욱 의원
3. 건명 :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
4. 청원요지 : 따로 붙임
5. 검토의견 : 따로 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5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장예순

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

검 토 보 고

본 청원은 2007년 5월 15일 동구 판암동 640-7번지 유성근 외 2,447인으로 오영세 의원과 김남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2007년 5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청원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동 청원지역은 판암 1, 2동을 합쳐 1만여 세대에 2만 6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, 지하철 출발지로서 1일 약 6천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나,

-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미개발된 곳이 많아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임.

나. 이와 같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판암동 308번지 일원을 대전시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포함하여, 총 면적 135,653㎡ 중 상업지역을 15,770㎡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,

-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안에는 상업지역 지정이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판암동 지역에 대한 조속한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도 상업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임.

다. 청원인 및 청원지역

- 청 원 인 :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640-7번지 유성근 외 2,447인
- 청원지역 :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판암역 일원

2. 사업추진현황

□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

〈사업개요〉

- 위 치 : 동구 판암동 302번지 일원
- 면 적 : 135,653m²(41,035평)/ 일반주거지역 51,538, 자연녹지 84,115
- 사업규모 : 1,647세대 4,612명, 공원 1개소, 주차장, 동사무소
- 개발방식 : 환지방식
- 시행기간 : 2006 ~ 2010
- 시 행 자 : (주) 하늘솔기 김영수

〈그간추진사항〉

- 2006. 7. 3 : 구역지정제안 / 시행자→동구청
- 2006. 9.29 :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- 2006.11.29 :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출 / 시행자→동구청
- 2006.11.30 :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기관 협의
- 2006.12.29 : 관련기관 협의내용 조치계획서 제출 통지(구→시행자)
- 2007 현재 :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서 작성중

□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

〈추진개요〉

- 법적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- 승 인 일 : 2006. 9. 1 (건설교통부장관)
- 계획내용
 - 도시공간구조 : 2도심 3부도심 13지구중심의 판암 지구중심
 - 토지이용계획 : 주거용지
- 당초계획 및 심의결과
 - 당초계획 :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판암지구중심에 상업용지 계획

- 심의결과 :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 결정에서 불가 승인
(사유) 해당지역과 주변여건 및 규모를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을
부여하여 상기능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의견

〈그간추진사항〉

- 2002. 12 :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
- 2002.11~2005.3 : 시민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
- 2005. 4.11 :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
- 2005. 5.31 : 도시기본계획(안) 승인신청 (시→건설교통부)
- 2005.6~10 : 중앙부처 협의
- 2005.11~2006.7 :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06. 9. 1 : 대전도시기본계획 승인

3. 검토의견

- 본 청원은 동구 판암동 640-7번지 유성군 외 2,447인으로부터 동구 판암동 판암역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조성해 달라는 청원으로 오영세 의원과 김남욱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되었음.
- 본 청원지역은 지난 2006. 7월부터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포함한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,
- 상위계획인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상 본 청원지역이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본 청원지역을 상업용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임.
- 시에서는 지난 2003. 11월, 동남부권 개발계획을 구상하면서 본 청원지역에 판암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, 2005. 5월, 2020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,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주거용지로 최종 심의, 결정된 사항임.

- 「도시개발법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계획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본 청원지역에 상업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임.
- 그러나 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본 청원지역을 상업용지로 계획하고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 왔던 점과 상업지역 지정을 바라는 청원인들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본 청원지역에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
- 본 청원을 수용하되 2020대전도시기본계획 업무와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